



**NH농협은행, 'AI100플랜 아카데미' 개최**  
NH농협은행은 10일 서울 노원 50플러스센터에서 '따뜻한 은퇴금융을 위한 올(AI)100플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동산 이슈점검과 지역전망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자산관리 및 투자전략을 제공했다. 농협은행 자산관리(WM)자문센터 김효선 부동산전문 수석위원이 부동산 자산관리 및 투자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주)대한상인과 소상공인 지원 맞손**  
KEB하나은행은 지난 9일 (주)대한상인과 슈퍼마켓이나 개인형 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자영업자들의 물품 구매자금 지원과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인석 KEB하나은행 중앙영업 2그룹 부행장(왼쪽)이 최병선 (주)대한상인 대표와 포즈를 취했다. /KEB하나은행



**효성, 장애어린이·가족 위해 1.5억 성금**  
효성이 장애 아동·청소년 재활을 위해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효성은 9일 푸르메재단에 '장애어린이 의료재활·가족 지원사업' 지원금 1억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5월 중 푸르메재단과 외부전문가들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임이사(왼쪽 세번째)와 효성 이정원 커뮤니케이션실 상무(왼쪽 네번째) 등 관계자들이 장애 아동·청소년 지원금을 전달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효성

**삼양그룹 수당재단 제 28회 수당상 수상자 선정**

수당재단은 '제 28회 수당상' 수상자 3명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상상은 삼양그룹 창업주인 수당 김연수 선생의 인재육성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1973년 수당과학상으로 시작해 2006년부터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3개 부문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올해 수상자는 ▲기초과학부문 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 ▲응용과학부문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인문사회부



이형목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왼쪽부터), 권익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책임연구원, 이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 /삼양그룹  
문 이태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스타벅스, 서울그린트러스트에 환경기금 2억 기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지난 9일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서울그린트러스트에 환경 기금 2억원을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금은 미세먼저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전국 20개의 숲과 공원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스타벅스는 서울그린트러스트의 서울숲공원 운영팀인 서울숲컨서번시에 나무 심기 기금을 전달하고 전국의 스타벅스 파트너들과 함께 숲과 나무를 가꾸는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스타벅스커피

**정신도 고령화사회**



**윤위중의  
잠시 심포**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미래보다 지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된다. 인생을 정리할 시기가 다가와서인지,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나이 먹으면 고지식해진다는 얘기도 같은 맥락이다.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보다 "그건 잘 모르겠고..." "내가 젊었을 때 말이야..." 하면서 자신만의 성에 갇혀 과거의 경험을 잣대로 세상을 평가한다. 소위 '꼰대' 소리를 듣는 이유도 나이를 먹으면서 사고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은 개인뿐 아니라 집단에도 적용된다.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은 구성원들의 나이뿐 아니라 정신도 고령화된 듯 하다. 몇년 전의 연예인 성접대 사건, 전직 고위공무원의 스캔들 같은 과거 캐기에 빠져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놓고 다시 잘못을 따지자고 덤비는가 하면, 당시의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며 자신들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우리가 과거사의 잘못을 가려보며 싸우고, 연예인들의 일탈에 관심을 쏟고 있는 사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은 미래를 개척하는데 역량을 쏟고 있다. 지금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기업들도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뛰어 들었다. 인재를 외국까지 가서 영입하고 사업구조를 재편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기업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의욕을 불어넣어줘야 한다. 하지만 정책을 집행하는 집단을 보면 여전히 과거의 고리타분한 틀을 벗지 못하고 있다. 10일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가 내놓은 '사람투자 10대 과제'만 봐도 그렇다. AI 같은 유망산업을 선도할 인재 4만6000명을 발굴하거나 스마트인재 11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는 좋다. 하지만 과거 'SW인재 10만 양병설' 같은 정책의 '4차혁명 버전'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진자를 심사해서

후련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인데, 누가 심사를 한다는 것인지, 이름만 바꾼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의미인지, 그렇게 육성한 인재들을 어디에 투입하겠다는 것인지 답이 없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현실인데,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14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직업능력개발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얘이기도 한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저 세계 각국이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든다니까 우리도 허겁지겁 뭔가를 만들자며 내놓은 방안처럼 허술하다. 과거에 매달리면서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돈을 펄펄 쓰면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후대에 넘어가게 된다. 지금 선심을 쓰는 사람들이야 몇년 뒤 물러나면 그만이겠지만,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채 과거와 오늘을 위해 기분을 내는 건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윤휘중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교사-입학사정관 생각차 줄이기' 단상**



**기자 수첩  
한용수  
(정책사회부)**

원탁에 둘러 앉은 고교 교사와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눈이 반짝 반짝 빛났다. 손짓을 곁들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포스트잇에 생각을 적었다. 교사들은 입학사정관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듣느라 귀를 쫓긋 세웠다. 지난 4일 성남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주최 교사-입학사정관 원탁토의는 진지했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냈다. 학생을 가르치는 고교 교사와 대학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이 만나 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생각의 차이를 줄이자는 취지의 첫 행사였기에 그런 듯 했다. 물론 교사들은 학생 선발을 어떻

게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컸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주로 대학별 선발 방식을 놓고 만났다. 이전까지의 만남이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문답식으로 진행했다면, 이번 원탁토의는 서로의 의견을 풀어놓는 자리였다. '꽃을 피우듯이 비상하는 것', '자신만의 잠재력을 스스로 이끌어내는 것', '자전거를 타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 '원하는 진로를 탐색하고 도전하기' 등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은 학생 성장에 대한 나름의 정의를 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들의 생각 차이는 생각보다 컸으나, 참석자들 다수는 '자주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던가 '의미있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소 엉뚱한 생각도 들었다. '교사와 입학사정관이 동일 인물이라면 어떨까', '학생을 가르친 교사의 학생부기록

대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이어졌다. 학생을 줄세워 뽑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입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는 이들은 많다. 하지만 방법론으로 들어가면 만만치가 않다. 숫자로 나온 근거가 없으면 공정성 시비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때문에 '차라리 수능으로 뽑거나, 학력고사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고교자유학기제나 수능 절대평가화 등등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과 대입의 방향과 현재 대입 전형 방식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가르치는 고교나 선발하는 대학 모두 혼란스럽다. '이상적인'이란 수식으로 등장한 '학종 전형'이 10년만에 '깜깜이 전형'이나 '금수저 전형'으로 낙인찍힌 것처럼, 앞으로의 대입 정책이 그런 절철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한용수 기자 hys@

**인사**

◆행정안전부 ◇서기관(행정)△정책평가담당관실 박래운 △혁신행정담당관실 정남규 △국제협력담당관실 황항미 △혁신기획과 김재웅 △조직진단과 최유균 △민원제도혁신과 여영숙 △민원제도혁신과 정명호 △전자정부정책과 이택길 △자치행정과 전우도 △사회통합지원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형발전과 박상국 △재정정책과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김혜영 △지역일자리경제과 김두수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국내출연(한국외대) 하상우 △재난구호과 최상원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기술서기관(전산)△공공데이터정책과 조만희 △전자정부정책과 이원규 △스마트서비스과 김동학 △정보자원정책과 권혁록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전명주 △주민과 김명수 △재난정보통신과 변희수 ◇기술서기관(시설)△지구촌세마을추진단 김창신 △주소정책과 최선양 △

안전사업조정과 박범수 △재난관리정책과 이일령 △기후재난대응과 차상화 ◇기술서기관(공업)△정부청사관리본부청사기획과 최순환 △정부청사관리본부시설총괄과 김형탁 ◇기술서기관(방송통신)△재난정보통신과 고성호 ◇수석전문관 △재난경감과 정성은  
◆YTN △제작국장 방병삼 △타워사업국 타워사업팀장 박흥구 △보도국 사회부장 유투권 △보도국 편집1부장 김종욱 △보도국 편집3부장 박순표 △기술국 뉴스기술1부장 박중대 △기술국 뉴스기술2부장 이상경 △기술국 제작기술부장 최광희 △글로벌센터 플랫폼서비스팀장 전재성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재정투자분석본부장 황지호

한화건설 홍보실장)·김종성(전 KT 센터장)·유만영(전 이리시의회 의원)·류석희(건국대 겸임교수)씨 장모상 = 9일 오후 3시께, 정음 호남장례식장 3층, 발인 11일 오전 8시, 063-533-4553. ▲유재빈 씨 별세, 인수(SBS 윤리경영팀 부국장)씨 부친상 = 10일,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10일 오후 5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12일 오전 7시, 010-7113-2752. ▲신중규씨 별세, 신태진(도시속의 향기마을 상임이사)·신정숙·신홍숙·신경희·신선희(한국예코페어파트협회 협회장)씨 부친상, 안익수·서종석·김기남·심병섭씨 장인상, 김진양(뉴스토마토 기자)씨 외조부상 = 10일 0시17분께, 부친 석왕사 장례식장 1층, 발인 12일 오전 5시30분, 032-664-4440. ▲박종인씨 별세, 김광녀씨 남편상, 박전외(오텔릭바이오 연구소장)·박태림(쥬이노온 대표)씨 부친상, 이찬희씨 시모상 = 9일 오후 4시 23분께, 서울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307호실, 발인 11일 낮 12시, 02-2225-1004(교한).

**부음**

▲김정섭씨 별세, 고영환(전 고창소방서 센터장)씨 모친상, 신완철(쥬이노온 PM 부문 대표·전